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40장 염려하지 말라

『산상설교』 하권 제40장, 인쇄 131~143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6:25 (낭독 본문 마태복음 6:25~30)

> ❓ **돈 쌓는 데 욕심은 없는데, 먹고사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도 문제인가?**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마태복음 6:25부터 새 대목이 시작되지만 주제는 여전히 6:19~24의 '세속화'라고 짚는다. 앞 대목이 땅에 보물을 쌓는 위험을 다뤘다면, 이 대목은 세상 것을 걱정하느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위험을 다룬다. 사탄은 앞문이 막히면 뒷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의 뜻을 바로잡는다. 이 말은 '마음이 나뉘어 흩어지지 말라'는 뜻이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어서 25절의 첫 논증을 푼다. 목숨과 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더 큰 것을 주신 분이 그것을 유지할 것도 주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면 염려는 설 자리를 잃는다.

📜 절별 정리

📜 1. 새 대목, 같은 주제: 쌓는 위험에서 염려하는 위험으로

로이드 존스는 먼저 이 대목이 산상설교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정리한다. 6장 앞부분은 기도·구제·금식 같은 개인의 영적 생활을 다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수도승이나 은둔자가 아니어서 세상에서 일하고 사업하며 수많은 문제에 눌린다. 그래서 주님은 6:19부터 6장 끝까지 늘 우리를 공격하는 '세속화'의 문제를 다루신다. 세속화란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이다. 19~24절은 땅에

대목은 부자에게, 이 대목은 빠듯하게 생계를 꾸리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나눈다. 로이드 존스는 어느 쪽을 택해도 상관없다고 본다. 부자도 염려하기 때문에 둘을 억지로 대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 25~34절의 주제도 여전히 세속화다
2. 앞 대목은 '쌓음', 이 대목은 '염려'다
3. 쌓지 않아도 염려로 속된 마음이 된다
4.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억지로 나눌 필요 없다
5. 핵심은 보이는 것에 매이는 위험이다

> **마태복음 6:19**
> 세속화를 다루는 큰 단락의 시작점
>
>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 **마태복음 6:25**
> 같은 주제 안에서 '염려'를 다루는 새 대목의 시작
>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 **마태복음 6:34**
> 단락 끝까지 염려 주제가 이어짐을 보여 줌
>
>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 2. 앞문과 뒷문: 사탄의 교활함과 주님의 '그러므로'

그의 목적은 이루어진다. 땅의 보물을 쌓으라는 유혹을 앞문에서 물리쳤다고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는 어느새 뒷문으로 들어와 염려를 일으킨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며 주님까지 교묘하게 시험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고 세밀한 데까지 경고하신다. 주님은 감정적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그러므로”로 시작해 이치를 따져 설명하신다. 이 “그러므로”는 25절, 31절, 34절에 세 번 나온다. 로이드 존스는 가르침의 큰 기술은 반복이고, 주님은 매번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반복하신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한다.

1. 사탄은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만족한다
2. 앞문을 막아도 뒷문으로 들어온다
3. 주님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가르치신다
4. '그러므로'가 25·31·34절에 세 번 나온다
5. 반복은 참된 교사의 기술이다

> **고린도후서 11:14**
>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교활함의 근거
>
>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 **고린도후서 2:11**
> 우리가 그의 계교를 모르지 않는 것은 주께 배웠기 때문
>
>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 **마태복음 4:3**
> 광야 시험에 드러난 마귀의 간교함
>
>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 **마태복음 6: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34

세 번째이자 마지막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가르침의 큰 기술은 반복하는 기술입니다."

📜 3. '염려하지 말라'의 참뜻: 나뉜 마음

로이드 존스는 낱말 풀이로 들어간다. 1611년 흠정역(AV)은 "Take no thought"라고 옮겼는데, 이 영어 표현의 뜻은 그 뒤로 달라졌다. 주석가들은 셰익스피어 시대에 이 말이 '근심하다, 염려하다'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한다. 주님이 쓰신 원어는 마음을 나누고 갈라놓고 어지럽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같은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 12:29는 "의심하지 말라"로 옮겼는데, 여러 칸으로 쪼개져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을 뜻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를 '성한 눈'이 아닌 상태, 곧 두 방향을 동시에 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중 시각이라고 풀이한다. 마르다가 좋은 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마음이 흩어져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고, 마리아는 하나의 목적에 마음을 모았다. 결국 주님은 세상 일을 너무 바라보다 하나님을 놓치는 이중적 삶을 경고하신다.

1. 흠정역의 'Take no thought'는 옛 표현이다
2. 원어는 '마음이 나뉘어 어지러움'을 뜻한다
3. 성한 눈의 반대, 곧 이중 시각이다
4. 마르다는 흩어진 마음의 예다

누가복음 12:29

같은 말씀의 평행 본문으로 '나뉜 마음'이라는 뜻을 보여 줌

>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6:22

'성한 눈'과 대조해 염려를 이중 시각으로 풀이

>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6:24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앞 대목과 이어짐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0:41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 마르다의 예

>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태복음 6:33

'먼저 구하라'는 성한 눈을 다르게 표현한 말

>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4. 오해 바로잡기: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명령을 반대 방향에서도 정리한다. 교회사에는 이 말을 문자

문맥만 보면 그 해석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주님이 예로 드신 새는 나뭇가지에 앉아 먹이가 저절로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쁘게 찾아다닌다. 백합화도 뿌리 박은 땅에서 자양분을 빨아올린다. 주님은 밭 갈고 씨 뿌리고 곡간에 들이는 농부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마에 땀을 흘려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의 어떤 이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며 일을 그만두고 자기들이 특별히 영적이라고 여겼다. 바울은 그들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짧게 답했다. 결국 이 명령은 게으름을 허락하는 말이 아니라 염려에 대한 경고이며, 빌립보서 4:6~7이 그 바른 풀이다.

1.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2. 새도 백합화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3.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4. 일 안 하는 '영성'은 바울이 꾸짖었다
5. 게으름이 아니라 근심을 금하는 말씀이다

> **마태복음 6:26**
> 바쁘게 먹이를 찾는 새가 수동적 해석을 배제함
>
>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 **창세기 3:19**
> 땀 흘려 먹고살라는 하나님의 명령
>
>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 **데살로니가후서 3:10**
> 재림을 핑계로 일을 그만둔 광신을 바로잡음
>
>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 [6]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5. 누구에게나 닥치는 위험, 삶 전체를 덮는 명령

로이드 존스는 이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강조한다. 조금만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주 굴복한다.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도 없어 보인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특히 가정을 돌보는 여인들의 시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남편이든 아버지든,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위험이라고 답한다. 이것들은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평생 짓눌려 살게 만든다. 이어서 25절을 푼다. 주님은 앞 대목처럼 먼저 큰 명령을 주시고 그 이유를 대신다. '목숨과 몸'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존재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건강·기력·성공·옷까지 삶 전체에 적용되는 철저한 명령이다.

1. 염려는 사람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죄다
2. 책임 진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시험이다
3. 평생을 짓눌림 속에 살게 만든다
4. 25절은 명령을 주고 이유를 댄다
5. 목숨과 몸, 곧 삶 전체에 적용된다

> **마태복음 6:25**
> 목숨과 몸 전체를 다루는 포괄적 명령
>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 **마태복음 6:31**

>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34

세 번째 반복으로 위험의 심각성을 드러냄

>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 6. 목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논증

로이드 존스는 25절 하반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의 논리를 푼다. 논리학자들은 이것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추론이라고 부른다. 주님은 “걱정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라. 그 목숨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신다. 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에 오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다. 생명이라는 더 큰 것을 주신 분이 그 생명을 유지할 음식도 주신다. 물론 우리는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생명이 갑자기 유지되지 못할 것처럼 염려할 필요는 없다. 새도 먹이를 찾아다니지만 먹이를 그 자리에 마련해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 논증이 성경에 흔하다며 로마서 8:32를 대표 예로 든다. 그는 과학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도 반박한다. 과학자들은 무기물과 유기물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그 무기물은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못한다. 우리는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셔서 세상에 온 존재다. 그러니 생명과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된다.

1. 큰 것을 주신 분이 작은 것도 주신다
2. 생명은 누구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3. 일은 하되 생존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4. 과학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는 논증의 본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로마서 8:32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같은 형식의 논증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6:26

새의 먹이를 마련하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30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냐는 같은 논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데서도 실패할 것입니다."

📜 7.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염려를 이기는 추론

로이드 존스는 마지막 추론을 끌어낸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미완성으로 남겨 두지

염려할 이유가 없다. 기차를 타다가 그 선로에서 사고가 났던 일이 떠오를 수도 있다. 그래도 생명과 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바른 생각을 붙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수십 세기 동안 하나님 백성의 신앙이었다며 필립 도드리지의 찬송 「오, 벧엘의 하나님」을 인용한다. 그 찬송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는 사실 위에 서 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책임지신다”고 믿었다. 로이드 존스는 원칙에서 시작해 필연적인 결론을 끌어내라고 권하며 설교를 맺는다. 그렇게 하는 순간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원한 처소를 향해 평안히 걸어간다.

1. 생명을 주셨다면 목적도 이루신다
2.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내신다
3. 사고 위험 앞에서도 생명은 그분 손에 있다
4. 도드리지 찬송은 성도들이 대대로 고백한 신앙이다
5. 원칙에서 결론을 끌어내면 염려가 사라진다

> **히브리서 11장 (전체)**
>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선배들
>
> **히브리서 11장**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25

결론에서 다시 붙들고 따져 보라고 권하는 본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어떤 일이든 결코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세속화

보이는 세상 것과 이 세상의 생각·생활 방식에 마음이 사로잡혀 하나님을 놓치는 것.

염려

이 본문에서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흩어져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흠정역(AV)

1611년에 나온 영어 성경(King James Version). 'Take no thought'처럼 지금과 뜻이 달라진 옛 표현이 있다.

성한 눈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다가 결국 어느 쪽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삶.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논증
더 큰 것(생명,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그보다 작은 것(음식, 모든 것)도 반드시 주신다는 성경의 추론 방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며 만사를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진리.

믿음이 작은 자
마태복음 6:30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돌보심을 실제 삶의 염려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25~34절은 19~24절과 같은 세속화 주제를 '염려'라는 다른 문으로 다룬다.
- '염려하지 말라'는 준비와 노동을 금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지 말라는 명령이다.
- 목숨과 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큰 것을 주신 분이 그것을 유지할 작은 것도 주신다.
- 하나님은 시작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원칙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믿음이 염려를 몰아낸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